

다이쇼인 절: 헨조쿠쓰

‘광활한 빛의 공간’이라는 뜻의 헨조쿠쓰(遍照窟)는 다이시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하실입니다. 여기서 ‘광활한 빛’이란 부처의 빛을 나타내는데, 이 빛에 이끌려 부처를 믿는 모든 중생들은 세속적인 삶의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봉납자의 이름이 새겨진 수백 개의 구리 조명을 천장에 매단 이곳은 방 전체가 조명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헨조쿠쓰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실내 벽을 가득 뒤덮고 있는 88구의 불상들은 시코쿠 순례(시코쿠의 성지를 순례하는 여행)로 찾아가는 88 개소 사원의 본존을 나타냅니다. 총 1,200km에 이르는 시코쿠 순례는 완주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원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88 개소를 순례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불상 앞에 깔린 네모난 타일 아래에는 불상을 모시고 있는 절에서 가져온 한 자루의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래는 불상을 모시고 있는 절의 경내를 의미하며, 모래를 밟으면 실제 사원을 찾아 참배한 사람과 똑같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중앙에는 조금 더 큰 불상이 2열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 줄은 십이지의 동물을 나타내며, 오른쪽 줄에 진열된 13구는 불교식 전통 장례에 관한 부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아미타여래상 2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불상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